

### 7월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하반기 돌입

# 기획행정위원장 누가 뛰나?

## 행정위원회서 명칭 변경... 최형열 의원 단독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위원회는 하반기부터는 기획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한다.

관장기관은 도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대변인, 감사관, 인권담당관, 특별자치도추진단, 교육소통협력국, 인재개발원, 자치경철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서울본부, 전북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이다.

거구) 의원이

최형열 의원은 지역구가 삼천 1-2-3동과 효자동이다. 전주대 사범대 수학교육과 졸업 후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 전주대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할 정도로 학구열도 높다.

8대와 12대 도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12대 전반기에는 농산업경제위원



최형열 의원

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적극 노력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서글서글한 외모에 누구나 부담 없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정도로 대담한 친화력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어 따르는 의원이 많다.

평소에도 권위주의를 지양하고 누구나 친근하게 의원에 다가서는 데 주저함이 없을 정도로 부담 없는 의원 상을 구현하고 있어 의원들의 신망이 두둑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서 위원장에 도전하는데도 강태창 의원이 처음에 위원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가 문승우 의원이 같은 군산이 지역구인 관계로 의장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위원장 도전을 포기하겠다는 전언이다.

이번 12대 하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6월 27일 치러지는데 다소 심경계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의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로 보인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관장기관은 도청의 주요 핵심부서이다.

도민들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좀 더 큰 틀에서 전북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위원장" 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로패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장이 23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 공로패는 선진의회 구현에 앞장서 온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최종오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상임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여받게 됐다.

최종오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항상 동료의원들과도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모두가 소신껏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집행부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익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5선의원으로서 익산시의회에 입성한 이래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종오 의장은 "의장의 직책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원해주신 시민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들을 섬기며 의정활동에 전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전북 공노협, "유진우 전 김제시 의원 제명 집행정지 기각 환영"

전북 공무원노동조합이 유진우 전 김제시의회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주지법은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보다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린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과거 교재했던 여성 A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조처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 전북자치도 청소년박람회 개막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개막식이 23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 업무미루에서 열린 가운데,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유정기 부교육감, 도내 청소년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중기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지원 확대를"

### 김술지 도의원 "사업 추경 반영은 환영하나 목적·규모서 미흡 지역인재 유출 막겠다는 목적이라면 보다 확대된 정책이어야"

이번 추경에 반영된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사업의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술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전북자치도가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술지 의원은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지원 사업 반영은 매우 환영하는 바이나, 사업의 목적과 규모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면서 "도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유출방안이 아니라 여성의



김술지 의원

경력단절 감소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가 반영한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지원 사업은 지역인재 유출·이탈 방지 및 육아휴직 제도 안정적 정착유도 목적으로 관련예산은 총 7,000만원이며, 수당지원비 6천만 원(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자 40명에 게 수당 월 30만원 최대 5개월 지원)과 운영비 1,000만원이 책정되었다. /이만호 기자

그는 이어 "광주와 경북에 이어 전북이 세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도내 중소기업 수에 비하면 지원규모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지역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목적이라면 다른 지역과의 확실한 차별화를 위해 보다 확대된 수당지원 정책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술지 의원은 지난해 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분야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남성 육아휴직 확대, 경력보유 여성 고용기업 지원 확대, 도내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전담부서 신설 등 저출생 대응과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 임실 옥정호 주변 섬진강 에코 뮤지엄 조성 현장 행정

###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3일 임실 옥정호 주변 섬진강 에코 뮤지엄 조성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는 지난해 3월 개장한 봉어섬 출렁다리와 생태공원이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옥정호를 찾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대표 관광 콘텐츠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최 부지사는 이날 심민 입실군수와 함께 관광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조성 현황 및 계획, 안전관리 실태를 청취하고 출렁다리, 생태공원 등 관광객 이용 시설을 점검했다.

도목 및 전기분야 민간 전문가로부터 출렁다리에 대한 사전 점검결과를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와 함께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3일 임실 옥정호 주변 섬진강 에코 뮤지엄 조성사업 현장을 찾았다.

바다데크, 도장 벗겨짐이나 강제 부식, 전기시설 등에 대한 관리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지난 2015년 착수한 섬진강 에코 뮤지엄 조성사업은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5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

고 있으며, 봉어섬 생태공원과 출렁다리 조성, 요산공원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 부지사는 "출렁다리는 관광객과 도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로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와 사전 위험요인 제거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봉어섬은 옥정호의 자연경관을 특화한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이 가능하도록 거점관광지와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역만의 특색을 가진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시군과 협력하고 관광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발굴·개발해 체류형 관광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한국 사면팅스텐 금속재료 신규공장 준공

초경합금 소재인 산화팅스텐을 생산하는 한국 사면팅스텐 금속재료사가 23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신규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뉴시스

##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전략 모색

### 전북연구원, 세미나 개최

#### 앞서 '제2회 백년포럼' 서

#### 유치 기원 퍼포먼스 선포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전략' 전문가 세미나를 23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전북연구원 생명경제정책실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레드바이오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을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세미나는 전문가 2건과 지역 내 레드바이오 전문가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먼저 고명환 전북대 교수가 '전북특별자치도 레드바이오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의 레드바이오 자원을 조망하고, 이어 하의현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전략'을 주제로 바이오 특화 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조용문 교수(전북대 의과대학), 최태영 교수(원광대 의과대학), 송기정 본부장(캡티브종합기술원), 서형민 본부장(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전북연구원은 지난 21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공연장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회 백년포럼'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선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제2회 백년포럼'의 인사말에서 바이오 특화단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바이오 특화단지는 전북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기원했다.

이남호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기원 퍼포먼스와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희망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염원이 전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 문정공 지포 김구 선생이 이어준 전북·제주 인연, 새 매듭으로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9~30일

#### '전북-제주 문화교류 학술심포지엄' 개최

전북연구원 전북학 연구센터(이하 센터)는 29일부터 30일까지 제주 문화관광에서 전북출신으로 제주 관광을 역임한 '문정공 지포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전북-제주 문화교류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전북자치도청이 주최하고 전북연구원 전북학 연구센터가 주관하여 진행되며, 전북자치도 의회,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의 회가 참여한다.

전북 부안 출신인 지포 김구 선생은 제주 관관으로 임명돼 제주도의 명물이자 문화유산으로 인정 받고 있는 '제주 발달' 쌀기 정책을 실행한 인물이다.

발달은 주변에 산재한 화산석을 이용해 밭의 담을 쌓는 것으로 농작물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고 강자의 농지 침탈 행위를 단절시킨 훌륭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29일 첫날 학술 심포지엄의 제 1강은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의 '지포 김구 선생의 업적과 제주 돌문화의 의의'를 시작으로, 제 2강, 김순이 제주문화관 명예관장의 '김구의 발달 정책에 담긴 휴머니즘', 제 3강, 고성보 제주대 교수의 '전북 돌문화의 미래-세계 관광 자원화의 길' 등의 대중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문정공 지포 김구' 선생을 매개로 한 교류의 역사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 학술의 영역에서 대중의 영역으로 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포 김구 선생 관련 우수공인' 등의 식전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 총평 및 교류의 시간에서는 김동진 제주대 교수가 총평을 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전북과 제주의 문화교류 및 제주 돌문화의 미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30일 둘째 날은 발달 관련 현지 답사가 이어진다. 제주 돌문화 마을, 돌문화 공인, 기념관 등 지포 김구 관련 돌문화 유적 답사를 통해 전북과 제주의 인연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심포지엄은 전북 지역을 주제로 하는 학문인 전북학의 저변을 넓히고 미래 지역학 연구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전북연구원 전북학 연구센터가 주관한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지포 김구' 선생을 필두로 전북자치도인 전북과 제주의 교류와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전북과 제주의 교류사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지포 김구 선생과 관련된 심포지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전북과 제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조망하고, 제주 돌문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제주의 교류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